울고싶은 세상, TV에서 공짜로 웃겨주네… 개그맨 전성시대

新 무소유 시대
일본 저성장 풍속도〈3〉

2007년 휴대전화 서비스 광고에 처음 선보인 이후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흰 홋카이도견 광고 시리즈. 아버지는 흰 개, 어머니와 딸은 일본인, 아들은 흑인이다. 앞치마를 두른 이가 가정부로 나오는 영화배우 토미 리 존스. 광고가 인기를 끌자 우주인 가정부, 엉뚱한 할머니 학생 등이 추가됐다. 소프트뱅크 광고 화면 캡처

"아니, 1주일 식비를 430엔(약 5000원)으로
모두 때울 수 있다고요?"
"에~."(방청객들의 야유하는 소리)
그러자 개그맨 가스가 도시아키(34)가
의기양양하게 대답했다.
"우선 쇠고기덮밥을 한 그릇 삽니다.
첫날에는 소스가 배어든 밥만 먹습니다.
둘째 날은 덮밥에 올려진
다진 파와 밥만 먹습니다.
셋째 날은 쇠고기를 절반만 먹습니다.
넷째 날에는 남은 고기 절반을 먹습니다.
다섯째 날은 덮밥그릇에 아직 남아있는
소스에 밥을 비벼 먹습니다.
여섯째 날은 맥도널드에서
햄버거를 하나 사서 고기 패티를 빼고
빵만 먹습니다.
일곱째 날은 남은 패티와 밥을 함께 먹습니다."

그가 속한 개그 2인조 콤비 '오도리'는 전국에서 제일 웃기는 개그맨을 뽑는 일본 TV프로그램 'M-1 그랑프리'에서 2008년 우승을 차지했다. '절약 개그'로 불리는 이들의 개그에는 애환이 녹아 있다. "무명시절 주스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물병에 다 눈깔사탕을 하나 넣고 흔들어 단맛 나는 주스를 만들었다"는 말에 사람들은 깔깔 웃는다.

이들이 이름을 알린 'M-1 그랑프리'는 일본 개그맨 전성시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01년 1603개 팀이 참여했는데, 2010년에는 4835개 팀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급증했다. 프로그램을 주최하는 일본 최대 예능 프로덕션인 요시모토코교(吉本興業)는 1912년에 설립된 유서 깊은 회사로 소속 개그맨만 1800명이 넘는다. 이 회사 매출과 수익이 비약적으로 늘기 시작한 것은 버블이 붕괴된 1990년대 초부터. 2007년엔 연간 매출 2600억 원, 순이익 200억 원을 냈다. TV 개그 프로그램이 늘어난 데다 이들을 극장에서 볼 수 있는 만담을 즐기는 고객이 늘었기 때문이다.

일본에서는 2003년 '엔타노 가미사마(엔터테인먼트의 신)'를 비롯해 2004~2005년 개그맨들이 단체로 나와 사람들을 웃기는 프로그램이 급증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상생활이 피곤할수록 서민들은 값싼 비용으로 또는 TV를 보면서 공짜로 웃고 싶어 한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트렌드에 민감한 광고업계와 기업의 마케팅도 소비자들의 이런 변화에 재빨리 대응했다. 제품 기능만을 돋보이게 하는 광고보다는 '일단 웃기는' 광고가 눈길을 끌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콘셉트나 기능 자체에 재미있는 요소를 넣거나, 브랜드의 정체성 자체를 '펀(fun)'에 맞추는 경우도 있다.

일본 예능 프로덕션
버블붕괴 되면서 급속성장

광고도 "일단 웃기고 보자"
브랜드 정체성도 fun에 맞춰

견공 앞세운 소프트뱅크 광고
200편 넘도록 5년간 인기 1위 지켜

대표적인 예가 일본 통신회사 소프트뱅크의 광고. 부부와 1남 1녀로 구성된 평범한 가족이 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평범하지 않다. 어머니와 딸은 평범하지만, 아들은 흑인이고, 아버지는 개(犬)다. 심지어 근엄한 목소리로 말도 한다. 소프트뱅크는 새하얀 홋카이도견을 앞세워 200편이 넘는 상업광고(CM)를 제작하였고, 이 시리즈는 5년 넘게 '일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광고'에서 1위를 지키고 있다. 이 광고는 왜 개가 아버지인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매회 귀여우면서도 엉뚱한 아버지의 활약에 웃음이 나올 뿐이다. 최근에는 주로 중후한 역할로 나오는 할리우드 배우 토미 리 존스를 이 집의 가정부 역할로 투입했다. 아무런 개연성도 없지만 소비자들은 예상 못한 캐릭터에 환호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비슷한 흐름이 발견된다. '개그 콘서트'의 인기 캐릭터로 부상한 브라우니가 제일모직의 패션 브랜드 빈폴 모델로 발탁되더니 세계 최대 소비자 가전 전시회인 CES 2013에도 등장해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한편 일본에도 힐링 열풍이 거세다. 일본의 국민그룹 '스마프(SMAP)'가 불러 음악 교과서에 실릴 만큼 유명해진 '세상에 하나뿐인 꽃'이란 노래가 발표된 것이 2003년이다. '넘버원이 되지 않아도 괜찮아. 너는 원래부터 특별한 온리원(Only One)이니까'라는 이 노래의 가사는 마치 최근에 한국에서 유행하는 힐링 서적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 같다. 연예인들도 독설형이 아니라 엉뚱한 이야기로 웃음을 유발하거나 상대방이 실수해도 '괜찮아, 괜찮아' 하며 이야기를 들어 주는 치유형이 대세다.

한석주 노무라종합연구소 서울 컨설턴트
정리=노지현 기자 isityou@donga.com

기고 | 어린이집 교사와 책 읽기

연일 터져 나오는 어린이집 비리는 충격적이다. 시장 바닥에 버려진 배추시래기를 걷어다가 국을 끓여 먹이기까지 했다니, 그 아이들이 원장의 손자 손녀라도 그렇게 했을까.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아이를 이런 곳에 맡겨야 하는 부모의 심정은 참담할 것이다. 이런 판에 어린이집 교사들을 위한 독서지도교육을 얘기하기가 조심스럽지만,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어서 몇 자 정리해본다.

뇌 전문가인 김붕년 교수(서울대 의대 소아청소년정신과)에 따르면 인간은 영아기 유년기 학령기 청소년기까지 20여 년 동안 형성되는 뇌로 남은 인생을 산다고 한다. 특히 책 읽기는 어린이의 평생 행복을 결정하는 생각지능의 매개다. 영국은 1992년부터 갓난아기와 산모에게 책 바구니를 선물하는 북 스타트(Book Start) 운동을 벌이고 있다. 독일 일본 호주 대만 태국도 비슷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우리도 대형 병원과 지자체가 나서준다면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다.

젓가락질처럼 책 읽는 습관도 어릴 때 익혀야 한다. 부모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지만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는 요즘엔 쉬운 일이 아니다. 결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틈틈이 책을 읽어주거나, 책을 이용한 다양한 놀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책이란 참 좋은 것이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상대는 3~7세의 아이들이다. 가르치려 들거나 강제성을 띠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물론이고 독서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소양이 있어야 한다.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10일부터 서울 관악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선생님들을 초청해 전문가들로부터 바람직한 어린이 독서지도교육에 대해 얘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주 1회 2시간씩 5주간 계속될 이 특별한 교육프로그램에는 '우리 아이 벌써 책과 친구 됐어요!'라는 이름을 붙였다. 성과가 좋으면 대상을 확대할 생각이다. 초중등학교는 이미 희망하는 선생님들에 한해 소정의 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수료증을 주고 있다. 그 대상을 한 단계 낮추려는 것이다. 독서는 아이건 어른이건 심성을 바르고 따뜻하게 해주는 힘이 있으므로 어린이집 분위기를 바꾸는 효과도 클 것이다.

우리는 싫든 좋든 때가 되면 아이들을 온갖 전자기기로 가득 찬 세상으로 내보내야 한다. 어쩌면 세상은 갈수록 거대한 게임방이나 전자오락실을 닮아갈지도 모른다. 최근 한국에 온 '기억력의 천재' 에란 카츠(이스라엘)는 "스마트폰이 똑똑해질수록 사람은 더 멍청해진다"고 했다. 그런 세상에 아이들을 그냥 던져놓을 수는 없는 일이다. 적어도 책의 가치와 소중함은 알게 한 후 내보내야 한다. 두 초등학생에게 각각 스마트기기와 종이책으로 국어문제를 풀게 했더니 종이책을 사용한 아이가 훨씬 빠르고 정확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책 한 권을 읽음으로써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던가." 미국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이다. 하물며 어린 시절의 독서랴. '책과 노는 어린이집'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위한 긴 안목의 가장 확실한 투자다.

이 재 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독자투고 | 국군포로 끝까지 찾아 생환할 수 있도록 해야

6월은 보훈의 달이다. 판문점에서 북한군과 대치하고 있는 우리 국군의 모습은 늠름해 보이는 동시에 분단국가의 서글픔을 느끼게 한다.

6·25전쟁 때 자유조국을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깊이 생각한다. 다시는 민족의 비극 동족상쟁이 없기를, 이제는 남북 간의 대치상태를 종식시키고 평화와 공존의 관계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우리는 6·25전쟁으로 인해 이슬처럼 사라진 13만여 명의 희생자와 16만여 명 실종자의 죽음을 항상 엄숙한 마음으로 추모해야 할 것이다. 평화는 결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전사자의 유해를 끝까지 발굴해 그 이름을 찾아줌으로써 진정한 애국 용사로 예우해줘야 할 것이다.

6·25전쟁 때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가 지금도 상당수 북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유엔과 국제기구의 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들이 하루빨리 조국과 가족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은 몸과 마음을 바친 선열과 국가유공자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에 빚져서다. 이들의 거룩한 애국심을 늘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이다.

진정한 선진국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가 보훈 정책의 선진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적극적인 보훈 정책 수립과 보훈예산 증액,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물론이고 국민적 보훈의식 고취교육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영웅들의 애국 혼을 기리는 보훈정신이야말로 국가 안보와 국민 통합의 원동력이 되는 근본이기 때문이다.

이 영 수 한국보훈학회 부회장